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트럼프가 파월 연준 의장을 해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으며 어제 화요일 밤에 트럼프는 이와 관련 공화당 지도부와 논의했다고 합니다. 이 같은 보도는 현재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

### 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6월 미 도매 물가 변동 없어
- Bloomberg: 6월 미 산업 생산은 증가했다...유틸리티 생산이 주도

### [미국 금융]

- YahooFinance: 다우, S&P500, 나스닥, 상승세 둔화
- WSJ: 골드만삭스 수익 급증...트레이딩 매출 증가로
- Bloomberg: BofA, 2분기 트레이딩 실적 사상 최대

### [무역전쟁]

- Bloomberg: 인도네시아 대통령, "미국 관세 19%로 협상 타결"
- Bloomberg: 트럼프, "의약품과 반도체에도 관세 부과 추진"
- WSJ: EU의 대미 수출 감소...대서양 무역 관세 갈등

### [주택]

- CNBC: 미 수요 10% 급감...금리 및 경제 불안 커져

### [인공지능]

- WSJ: 트럼프, 펜 주에 수십억 AI 허브 건설 발표
- NYT: AI는 어떤 근로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칠까: 젊은 근로자 vs. 경험이 풍부한 근로자

### 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WSJ: 에어비앤비에서 '서비스' 기능 도입...호스트들은 우려 커

### 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### [미국 경제]

## Bloomberg: US Producer Prices Stagnated on Decline in Services Costs 6월 미 도매 물가 변동 없어

- 6월 미 도매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었다. 여행 관련 서비스 비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상품 가격 상승세가 낮아졌기 때문이다.
- 오늘 연방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5월 도매 물가는 0.3% 상향 조정됐으나 6월에 들어서는 도매 물가가 변동이 없었다. 지난해 동월에 비해서는 2.3% 상승했다.
- 식품, 에너지 등을 제외한 핵심 도매 물가도 변동이 없었는데 지난해 동월과 비교해서는 2.5% 상승해 지난 2023년 하반기 이후에 가장 낮은 폭으로 인상됐다.
- 특히 서비스 비용은 0.1% 떨어졌는데 하락 폭의 반 정도는 여행 관련 서비스 비용이 4.1%가 하락한 탓이다.

Bloomberg 기사

## Bloomberg: US Industrial Production Rises on Pickup in Utility Output 6월 미 산업 생산은 증가했다...유ти리티 생산이 주도

- 6월의 미 산업 생산이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는데 유ти리티의 급격한 생산과 제조업의 일부 상승에 따른 것이다.
- 연준의 오늘 수요일 발표에 따르면 5월에는 산업 생산이 별 변동이 없었는데 6월 들어 공장, 광산, 유ти리티(전기, 수도 등) 등의 산업 생산이 0.3% 상승했다. 특히 유ти리티 생산은 2.8% 상승한 반면 광산 분야 생산은 감소했다.
- 전체 산업 생산에 4분의 3을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은 5월에 0.3% 상향 조정된 반면, 6월 들어서는 0.1% 상승했다.

Bloomberg 기사

### [미국 금융]

## YahooFinance: Dow, S&P500, Nasdaq lose steam as Wall Street juggles tariffs, earnings, and inflation 다우, S&P500, 나스닥, 상승세 둔화

- 월가는 예상외의 도매 물가 지수와 그리고 기업들이 관세에 잘 버티고 있는지 실제로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오늘 수요일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.
- 다우 존스는 0.1%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, 나스닥은 0.04% 하락, S&P 500은 0.05% 상승에 머물러 있다. 그러나 이어 11:59am 현재 S&P 500과 나스닥은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
- 한편, 월가는 최근 소비자 물가 지수의 강세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을 줄이고 있다.

YahooFinance 기사

## WSJ: Goldman Sachs Profit Surges, Powered by Trading, Investment Banking Revenue 골드만삭스 수익 급증... 트레이딩 매출 증가로

- 골드만삭스의 수익이 각종 금융상품의 매매 매출 증가로 급등했다.
- 2분기 수익이 22% 늘어난 37억 2천만 달러로 상승했다. 주가 당 10달러 91센 트가 상승한 것이다.
- 매출은 15% 늘어난 1백45억 8천만 불로 증가했는데 트럼프의 관세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으로 각종 금융상품 매출이 급증한 것이다.

WSJ 기사

**Bloomberg: Bank of America Beats Estimates as Trading, Lending Revenue Outperform  
BofA, 2분기 트레이딩 실적 사상 최대**

-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실적이 높은 변동성의 수혜를 받아 2분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. 순이자 수입도 전문가 예상치를 뛰어넘었다.
- 구체적으로 2분기에 국채, 외환 등의 거래로 인한 매출이 19% 상승한 32억 5천만 불을 기록했다. 주식 거래 수입도 9.6% 늘어난 21억 3천만 불에 달했다. 관세 불확실성으로 고객들의 거래 활동이 늘어나면서 수입이 증가한 것이다.

Bloomberg 기사

**[무역 전쟁]**

**Bloomberg: Prabowo Confirms US to Impose 19% Tariff on Indonesian Goods  
인도네시아 대통령 “미국 관세 19%로 협상 타결”**

-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통해 미국 관세 19%에 합의했다는 점을 확인했다.
- Prabowo Subianto 대통령은 “미국과 더 좋은 무역 관세를 이루기 위해 계속 협상할 예정”이라면서 “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까다로운 협상가”라고 말했다.
- 인도네시아 관계자는 19% 관세가 인도네시아의 일부 노동 집약적인 부문에 혼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.

Bloomberg 기사

**Bloomberg: Trump Says Drug Tariffs Probable by Aug. 1, Downplays More Deals  
트럼프 “의약품과 반도체에도 관세 부과 추진”**

-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해 빠르면 이달 말에, 그리고 반도체도 조만간 관세를 부과할 것 같다고 말했다.
- 트럼프는 의약품 관세율은 처음에는 낮게 시작한 후 기업들이 이에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관세를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.
- 그는 여러 국가와 8월 1일 전에 협상이 타결되고 그 중 인도와의 타격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.

Bloomberg 기사

**WSJ: EU Exports to U.S. Cool as Trans-Atlantic Trade Faces Tariff Test  
EU의 대미 수출 감소...대서양 무역 관세 갈등**

- 유럽의 대미 수출이 1분기 호황 이후 5월 들어 감소했다. 이는 1년 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, 향후 대서양 무역이 관세 갈등으로 인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.
-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EU 상품에 대해 30%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며, 이에 대해 EU도 보복 조치로 720억 유로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.
-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 Maros Sefcovic은 30% 관세가 부과되면 EU와 미국 간 현재 수준의 무역을 지속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 말했는데, 이는 미국과 EU의 관계가 전 세계 상품 교역의 약 30%를 차지하기 때문이다.

WSJ 기사

### [주택]

#### **CNBC: Weekly mortgage demand plummets 10%, as rates and economic concerns rise 미 수요 10% 급감...금리 및 경제 불안 커져**

- 관세와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지난주 국채 수익률 상승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했다.
- 적격 대출 잔액 806,500달러 이하 기준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6.77%에서 6.82%로 상승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는 이번 주 12% 감소했고, 작년 같은 주 대비 13% 증가했다. 이는 5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.
- Mortgage New Daily의 COO Matthew Graham은 “관세가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영향이 적었지만,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”고 밝혔다.
- 인플레이션이 약간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초부터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세이다.

CNBC 기사

### [인공지능]

#### **WSJ: Trump Touts Billions in Investments to Create AI Hub in Pennsylvania 트럼프, 펜 주에 수십억 AI 허브 건설 발표**

- 세계 최대 기업들이 펜실베니아주의 AI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는데,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.
- 구글은 향후 2년간 펜실베니아주와 인근 지역의 AI 모델 훈련 인프라 데이터 센터에 250억 달러를, 사모펀드 회사 Blackstone 또한 추가로 2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.
- 이번 투자는 펜실베니아를 기술 허브로 전환하고 AI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. 기술 대기업과 투자자들은 현재까지 1조 5 천억 달러 이상의 국내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표했다.
- 반면,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대규모 투자 발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업계 분석가들도 생겨나고 있다. 대규모 AI 허브 구축 구상은 종종 실현되지 않거나 기존 계획과 별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다.

## WSJ 기사

## **NYT: Which Workers Will A.I. Hurt Most: The Young or the Experienced? AI 는 어떤 근로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칠까: 젊은 근로자 vs. 경험이 풍부한 근로자**

아마존 CEO Andy Jassy 가 지난달 회사의 AI 도입으로 향후 몇 년간 “전체 인력이 감축될 것”을 예상하며 근로자들의 우려를 커지게 만들었다. 2 주 후,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체 인력의 약 4%에 해당하는 9,000 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. AI 가 일부 직종의 근로자를 대체할 것이라는 점은 이제 부인할 수 없지만, 정확히 어떤 종류의 근로자가 대체될까?

일부 전문가들은 AI 가 신입 근로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주장한다. 신입 근로자의 업무는 보통 단순하며, 자동화가 가장 쉽기 때문이다. AI 가 5 년 안에 화이트칼라(White-Collar) 신입 직종의 절반을 대체할 수 있다 말하지만, 그렇다고 해서 AI 만이 높은 실업률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.

...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

## NYT 기사

## 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### **WSJ: Airbnb Lets You Add a Private Chef to Your Rental. Your Host Might Not Like It.**

**에어비앤비에서 ‘서비스’ 기능 도입...호스트들은 우려 커져**

- 에어비앤비가 호텔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색다른 숙박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‘서비스’ 기능을 출시했다. 여행객들이 숙소 내에서 개인 셰프, 마사지 치료, 운동 지도 등 다양한 옵션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.
- 호스트는 자신의 숙소에 예약된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, 서비스 예약이 되더라도 알림을 받지 못할 수 있다. 일부 호스트는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한 우려로 아예 에어비앤비를 탈퇴하고 있다.
- 에어비앤비는 이 기능의 출시로 게스트들에게 더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장기적으로 호스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.

## WSJ 기사

## [보고서]

### **“미국채 30 년물 금리 또 5% 넘겨...한달여 만”**

30 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한 달여 만에 다시 5%를 넘어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5 일(현지시간) 보도했다.

이날 미 국채 30 년물 금리는 장중 최대 5.023%까지 상승했다. 30 년물 금리가 5%를 넘어선 것은 지난달 초 이후 처음이다.

블룸버그는 약 5 주 이내에 30 년물 금리가 5.3%로 상승할 것을 목표로 하는 옵션거래에서 약 1 천만달러의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다면서 5.3% 수준의 30 년물 금리는 2007 년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.

...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

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